

# 전선 지중화 체계적 추진 절실

### 제주, 지난해 기준 지중화율 19.3%... 17개 시도 중 9번째 대상지 선정 늦어 본예산 확보 난항... 용역 추진해 개선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주(배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율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태풍의 길목인 제주는 강풍에 전선주가 쓰러지는 등 자연재해가 잦고,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으로 빼어난 조망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한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요구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2일 제주시와 한국전력 제주지역 본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도내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19.3%로 전국 17개 시도 중 9번째다.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59.8%), 가장 낮은 곳은 경북(6.9%)이다.

전선주 지중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은 한전이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면, 지자체와 한전이 공사비를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구조다.

배전선로와 함께 통신주를 철거하

고 지중화하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전선주가 쓰러지는 등의 재해의 영향을 덜 받는 동시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전선줄이 사라지면서 도심환경이 쾌적해진다. 보도에 설치된 전선주가 사라지면 보행자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이처럼 지중화가 이뤄지면 순기능이 많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지중화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제주시의 설명이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2007년부터 시작된 지중화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20개 노선·15.87km 구간에서 사업이 진행됐다. 사업은 1년에 2~3개 노선에서 진행되지만 완공까지 2~3년이 걸린다.

행정에서 관련 예산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대상지 신청을 7월쯤 받아서 연말에 선정하면서 이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제주시는 지난해 한전에 12개 지중화사업 노선을 신청해 8개 노

선이 선정됐지만 관련 예산은 올해 2회 추경에서 확보하면서 신산마루, 고마로, 신제주초 주변, 외도초 주변 등 4개 구간에서만 2022년까지 지중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예산 확보만으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체계적인 지중화사업을 위해 내년 전선 지중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사업의 경제성과 효과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만들고 시급한 구간에 대한 집중 투자 방안을 세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선 지중화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 대상구간 선정이 연말에 이뤄지면서 본예산 확보가 어려워 선정시기를 9~10월까지 앞당겨 달라고 한전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 제주본부 관계자는 "대상지 선정 시기와 관련한 제주시의 의견을 본사에 전달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신청한 8개 학교 통학로 주변 지중화사업에 대한 심의가 있어 기존 지중화사업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에월읍, 7일 신청사 업무 개시

제주시 에월읍사무소(읍장 부태진)는 오는 7일 신청사(에월읍 일주서로 6322)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사 이전작업은 5~6일 이틀간 이뤄진다.

옛 에월읍사무소는 1985년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서 건물 내·외부가 노후되고 공간도 협소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2018년 안전진단에서는 D등급을 받아 재건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에월읍은 2018년 신청사 신청



오는 7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에월읍사무소 신청사. 사진=제주시 제공

을 위한 설계 공모와 함께 재정투자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5월 총사업비 123억원을 투입하는 신

축공사에 착공해 최근 준공했다. 신청사는 연면적 436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문미숙기자

## 노인·일용직 생계지원 쇄도 서귀포시, 669가구 1차 지급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노인·일용직근로자 계층의 생계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가 지난달 30일까지 지역 내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생계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2055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을 집계·분석한 결과 특히 노인·일용직근로자 계층의 신청이 쇄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직업별로는 일용직근로자의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65세 미만이 1255가구에 61%를 차지했다. 65세 이상은 750여 가구에 36%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노인·일용직근로자 계층의 일자리·소득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귀포시는 1차 신청 728가구에 4일 1차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또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까지 2차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는 소득·재산 확인, 중복 지원여부를 중점 살핀다.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 현영희기자

## 성평등 문화 제주에 깃든다 (7) 에필로그

### “성평등한 제주, 우리 함께 만들어요”

#### 제주, 성평등 정책 선도 평가 실질적 성평등사회 아직 먼 길 도민인식 변화 위해 관심 절실

제주지역 성평등 정책은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을 비롯해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해서는 도민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라일보는 올해 '성평등 문화, 제주에 깃든다'라는 기획을 통해 제주 도내 성평등 문화 수준을 살펴보고 정책 상황을 진단하는 등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제주 성평등 정책의 현주소=제주도의 성평등과 관련한 정책 추진은 '성평등한 제주' 실현을 위해 2018년 8월 양성평등정책관 조직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신설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성평등정책관 조직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양성평등정책과, 여성가족정책과 등의 조직이 구성된 적은 있지만 집행업무에 치중하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했다.

그러나 개방형 성평등정책관을 비롯해 전담 조직이 신설되면서 도정 전반 영역에 성평등 관점 확산을 위한 정책 실행기반이 구축됐다. 민선 6기에 접어들며 제주도가 성평등과 관련해 선도적으로 성평등 전담 조직을 구성했고,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 주류화 정책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마을에 불어오는 성평등 변화의 바람=제주도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마을을 규약 만들기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마을의 특수성과 자치권을 존중하면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 여성들도 마을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관점에서 시작된 이번 사업은 도내 여성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마을 규약 제정의 핵심은 여성도 마을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갖자는 것이지만, 사실 모두가 평등하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성평등 정책 추진 부서인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한데 이어, 양성평등담당관 및 담당을 지정해 성인지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2018년 12월 열린 양성평등 담당관·담당 발대식. 사진=제주도 제공

고 평화로운 마을을 만들자는 데 있고, 주민들 스스로가 성평등 관점에서 마을 규약을 되돌아보고 불평등한 부분은 수정·보완하면서 중장년 남성 위주로 돌아가던 마을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 성평등과 관련한 선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여성이 안심하고 살기좋은 제주=제주도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여성안심 3종세트 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등 여성 안전분야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최근 도내 여성 1인 가구 증가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안전 부문 성평등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여성 1인 가구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여성 안전도시 인프라 조성 및 여성 안심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여성안심 3종세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지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통한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제주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등을 통한 디지털성범죄는 모두 22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등 9개 담당 부서로 구성됐다. 또한 제주도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 및 사업 등의 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성평등 교육의 허브=성평등에 대한 이해나 의지는 가장 어려운 과제로 지목된다. 사람마다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이에 따른 이해도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개소했다. 이곳은 세대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성평등 교육을 연구하고 진행할 허브로, 제주지역 성평등 교육, 정책 등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조성됐다.

현재 양성평등교육센터에서는 양성평등 의식 확산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대상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전문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양성평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센터 홍보 등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평등 교육 등의 제도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성평등과 관련 제도적 기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평을 대내외적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도민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함께 제주도, 도의회, 시민사회, 언론 등이 함께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2020년 12월**  
**혈통등록제주마 경매**

**주관**  
사단법인 제주마생산자협회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축산농협, 제주축산농협, 그린팜영농조합법인, (주)희망축산제주Breeder Park

□일시  
2020. 12. 8(화) 10:00

□장소  
서귀포시축산농협가축시장

□구매신청 및 선납금  
선납금 두당 50만원  
- 선납금 송금계좌  
농협 : 351-0881-3680-13  
계좌명 : 제주마생산자협회.

**예언의 집**

권

운세, 운명을  
기도(도법)로  
정성으로  
풀어 드립니다.

**직접상담**  
**010-5736-6951**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맛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방지 가시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복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